

나주시 ICT 접목 '스마트 팜' 조성 도전장

농림부 주관 사업...市, 40ha 1800억 규모 예비계획서 제출 최적 생육환경 자동제어 통해 생산성 향상·병해충 절감 효과

나주시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시킨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 팜' (Smart Farm)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예비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팜은 1차 산업인 농업에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농작물 재배 시설 온도 및 습도, 햇빛의 양 등을 분석하고 원격조종을 통해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판로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동비 절감, 병해충질병 감소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 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는 규모화와 직접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기능

을 갖춘 산업단지로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시의 예비계획서에 따르면 전체면적 40ha, 사업비 18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청년보육 및 실습농장 ▲청년임대 스마트 팜 ▲기업연구 실증단지 ▲특화시설 및 생산단지 스마트 팜 ▲에너지 공급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단지로써 농업 분야 파급효과가 높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내세웠다.

또 청년 농업인 양성 교육기관인 호남원예고등학교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식품유통공

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업 관련 공공기관 간의 공동기술개발에서부터 상용화와 실증까지 가능한 복합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스마트팜 사업부지 면적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며 "기본계획 수립 승인절차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평가와 대면평가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이달 내 시·군 각 1개소를 선정해 오는 7월13일까지 농식품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난임부부 시술비용 화순군 지원 확대 호응

화순군이 올해부터 확대한 정부지원 범위 밖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시술비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위소득 130%에서 200%로 상향하고 1회당 난임 시술비용(신선배아 기준 50만 원)을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1회 350~400만원)으로 총 12회까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강보험 난임 시술 대상자의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가운데 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한다. 시술 종료자에 대해서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항목을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와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진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만 44세(진료시작일 기준) 이하 여성,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의 주민등록이 군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 부부이며 위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부인 주조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로 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블루베리 수확의 기쁨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에 위치한 드림농원에서 귀농인 고희순씨가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다.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를 맑게 해주며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업그레이드 된 지역 청년정책 수립한다

8월까지 종합 실태조사 초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

장성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역청년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지역청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규모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착수한 이번 조사는 4개월 뒤인 오는 8월18일 완료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장성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이다.

설문조사에선 지속적인 장성 거주 의향

을 묻고 경제지표와 일자리·창업, 여가문화, 지역에 대한 인식·가치관, 청년정책 인식·평가, 청년건강, 귀농·귀촌 등 지역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성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청년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이 이처럼 새로운 청년정책 수립에 나선 이유는 65세 이상 어른신이 전국 수위를 다룰 정도의 대표적 초고령화 지역이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초고령화 지역이면서도 초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례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려면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고민을 안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면 지역 청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환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초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담빛수영장' 18일 정식 개장



담양군이 15일까지 담양국민체육센터 내 '담빛수영장' (사진)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8일부터 정식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말 군민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 준공된 담빛수영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험가동을 최근 마쳤다.

시범운영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운영된다. 정식 개장일인 18일부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이다.

군은 정식 개장 운영에 따라 수영장이용 강습회원을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해 18일부터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매일 4회 강습할 예정이다.

강사 2명과 안전요원 4명이 배치돼 근무하게 되며 강습은 새벽반과 오전반, 저녁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담양=정재근 기자 jjg@kwangju.co.kr

화순 나들목 주변 '접시꽃 거리' 조성 눈길



화순 나들목 주변에 조성된 '접시꽃 거리'.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생활권 주변 짜투리 땅과 나들목 주변에 여름철 볼거리를 위한 '접시꽃 거리'를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으로 친숙한 접시꽃을 생활권 주변에 심어 전국 제일의 접시꽃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접시꽃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6월부터 8월까지 초여름에 흰색과 붉은색 등 여러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올해부터 오는 2021년 까지 4년에 걸쳐 화순읍 관문인 이십곡리와 화순 전남대병원 진입로 등 18개소 약 12km에 걸쳐 접시꽃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해 8월 접시꽃 씨앗 60kg을 모아 9월 화순읍 나들목 등 4개소 약 3km에 파종했다.

지난해 파종사업은 올해 성과를 내 최근 지역 곳곳에 접시꽃이 만개하면서 군민과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화순 전남대병원 진입로변에 조성된 접시꽃 거리는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는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접시꽃 거리를 조성하고 접시꽃을 주제로 한 시낭송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BA 2016 한국수입관리협회 우수기업
2011 코리아엔트프렌드대상
W 한국여성기업협회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